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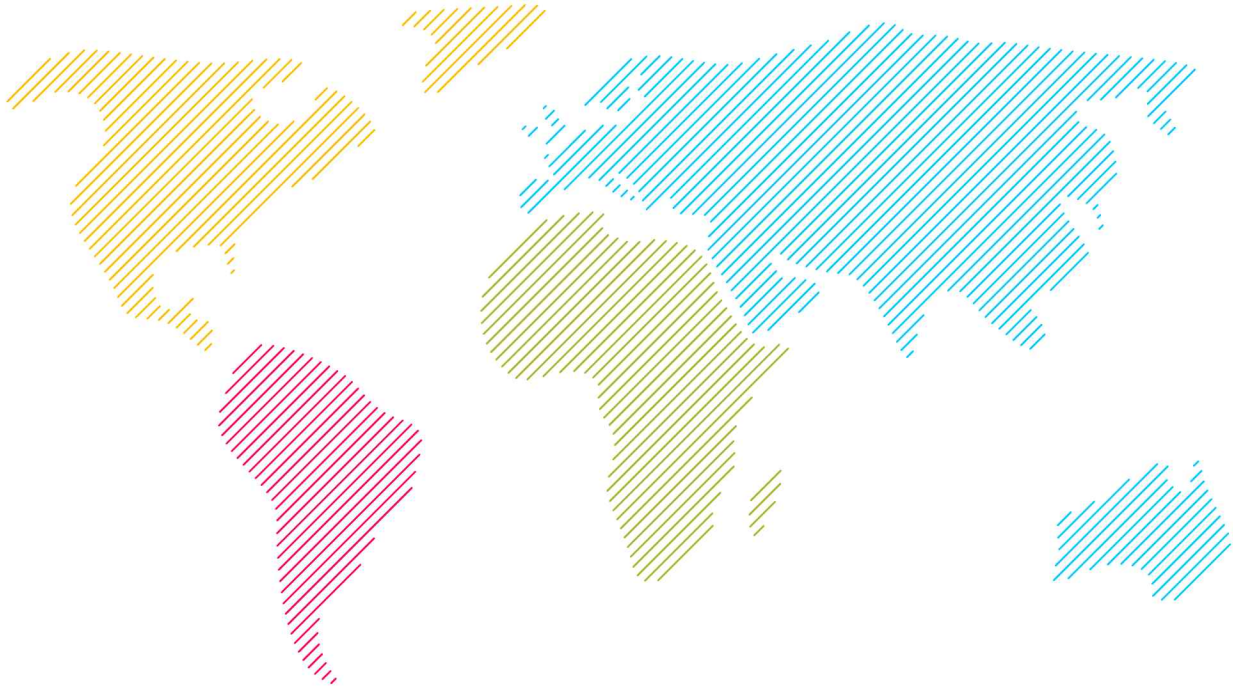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 시사점

박진희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이한나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 시사점

요약

- ▶ 최근 수입 및 B2C를 중심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율 조정, 통관 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 정저우(郑州)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 중국의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액은 5.4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입액은 약 71% 정도 증가하였고 B2C 교역액은 약 두 배로 확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물 수출 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환급해주고, 통관 전산화로 통관 효율도 개선
- 기존에는 B2C 수입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일반무역의 약 70%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수입 허용상품 목록(포지티브리스트)을 발표하고 위생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
- 2012년부터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등 8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지정, 2015년 8개 시범도시가 포함된 13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
- ▶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에서 ‘보세창고(备货)’ 수입 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B2C 수입 및 해외상품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유치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
- 대량 운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이 가능한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통해 분유, 기저귀 등의 영유아용품, 화장품, 식품 등이 많이 수입되었으나, 최근 B2C 수입상품에 대한 세율 조정, 위생허가 의무화 등으로 일부 영유아용품, 화장품 수입이 감소
- 각 지역의 보세구와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해외상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O2O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저우에는化妆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상품 비중이 50% 이상인 O2O 체험점도 개설됨.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우수한 산업기반을 갖춰 중국의 첫 종합 시험구로 지정된 항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정 연구, 국제 통용규칙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
- 광저우는 인접한 홍콩·마카오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인증서 상호인증, 세관 관리감독시스템 연동 등의 협력을 추가적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산업기반이 취약한 정저우는 생활보조금 지급 등 우대정책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및 인력양성에 주력
-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한국상품을 소싱하려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O2O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과 물류기업은 이를 통한 제품 유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해 중국 현지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기업이 선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은 O2O 체험점을 통해 제품을 용이하게 홍보할 수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우수한 항저우는 대형 물류기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 신선식품 수입이 많은 광저우는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많으며 △ 공항경제종합시험구를 중심으로 항공물류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정저우는 항공물류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2016년 4월 B2C로 수입되는 분유, 화장품 등에 위생허가를 의무화한 조치가 5월 말 다시 유예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의 변동이 잦은 가운데서도 점차 제도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의 수입상품과 관련된 정책 변화 추이를 잘 살피고 유예기간 동안 화장품, 분유 등 제품의 위생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차 례

1.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2.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
3. 거점지역 현황
 - 가. 항저우
 - 나. 광저우
 - 다. 징저우
4.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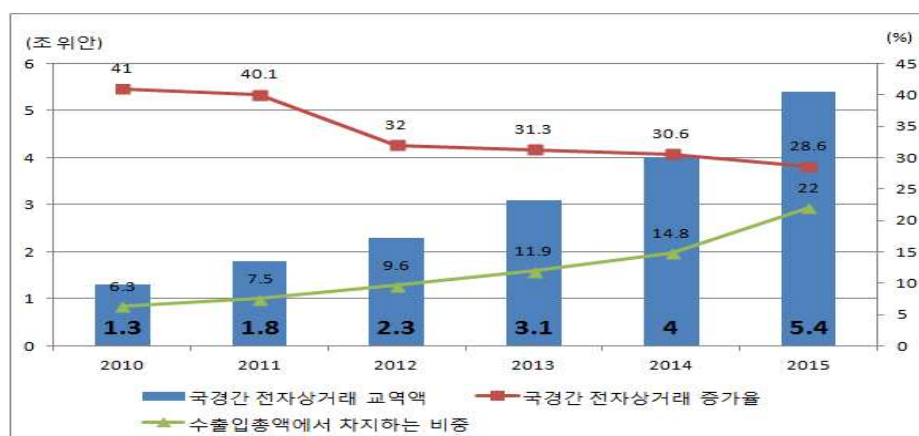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 중국의 인터넷·모바일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해외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Cross-border e-commerce)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무역 대비 비중도 상승¹⁾

- 국경간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개인·기업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상품 구매와 결제를 거친 후 국제물류를 통해 운송·수취하는 것으로,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국제 결제 및 물류, 수출입 통관이 필요²⁾
- 2015년 중국의 무역액이 전년대비 7% 하락한 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5.4조 위안)은 전년대비 28.6% 증가하여 전체 무역 내 비중이 2014년 14.8%에서 2015년 22%로 상승³⁾
- 중국 상무부는 2016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6.5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향후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⁴⁾

그림 1.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및 전체 무역액 대비 비중(2010~2015)



주: 좌축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우축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증가율(%)에 해당.

자료: Tentinet(2015), 「2015年中国跨境电商行业分析研究报告」; 2015년 데이터는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2016), 「2015年中国网络零售市场数据监测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업데이트.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중 수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의 수출 규모는 전체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의 83.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

1) 2015년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50.3%, 모바일기기 소지자는 6.2억 명. CNNIC,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국제 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으로도 불리우며, 중국은 홍콩·마카오와의 전자상거래도 국경간 전자상거래로 분류.
 3)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중국 대외무역액에 포함됨.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2016), 「2015年中国网络零售市场数据监测报告」.
 4) 「中国2016年跨境电商进出口额预计达6.5万亿元」(2015. 5. 29), 21CN, <http://news.21cn.com/world/guojisaomiao/a/2015/0529/19/29607826.shtml>(검색일: 2016. 5. 5).

지한 반면, 수입액은 약 9천 억 위안으로 전체의 16.8%에 불과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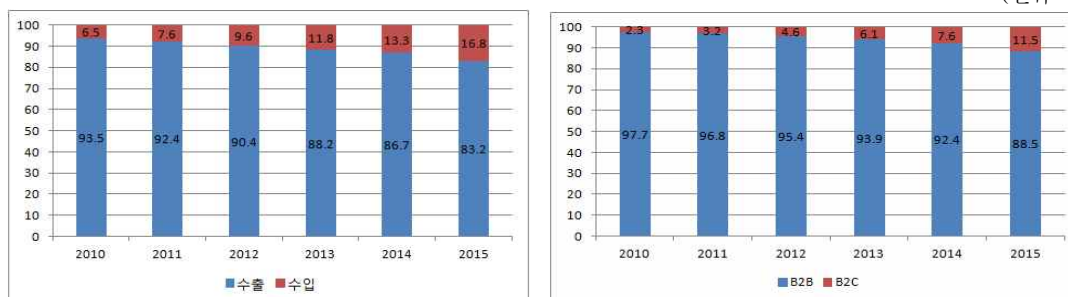
- 그러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의 증가 속도가 2015년 71%에 달하여, 수입 비중이 2010년(6.5%) 대비 10%p 상승⁶⁾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은 B2B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B2C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기업간 거래인 B2B 교역액은 2015년 약 4.8조 위안으로 전체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의 88.5%를 차지
- 기업과 개인 간 거래인 B2C 교역액은 같은 해 약 6,200억 위안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하나 B2B 비중이 전년대비 3.9%p 하락한 데 반해 B2C 비중은 전년대비 7.6%p 상승

그림 2. 2010~15년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비중(좌측) 및 B2B · B2C 비중(우측)

(단위: %)



자료: Tentinet(2015), 「2015年中国跨境电商行业分析研究报告」; 2015년 데이터는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2016), 「2015年中国网络零售市场数据监测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업데이트.

2.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

■ 국경간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 세율 조정 △ 통관 관리·효율 제고 등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임.

- 2013년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물 수출 시 세관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增值稅)와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수출 장려
- 세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전산망으로 세관과 연결된 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교역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24시간 내 세관 수속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함.
- 2014년 세관 등록 후 정식으로 수입되는 소매상품에 대해 일반무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국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이공(代工)⁷⁾ 등을 통한 불법 수입을 줄이고자 함.

5) 「2015年中国跨境电商交易规模5.4万亿元」(2016. 5. 17), 21CN, <http://finance.sina.com.cn/roll/2016-05-17/doc-ifxsehvu9097502.shtml>(검색일: 2016. 5. 5).

6) 「我国跨境电商出口增长近五倍」(2016. 3. 6), 21CN, http://www.legaldaily.com.cn/index/content/2016-03/06/content_6511982.htm?node=20908(검색일: 2016.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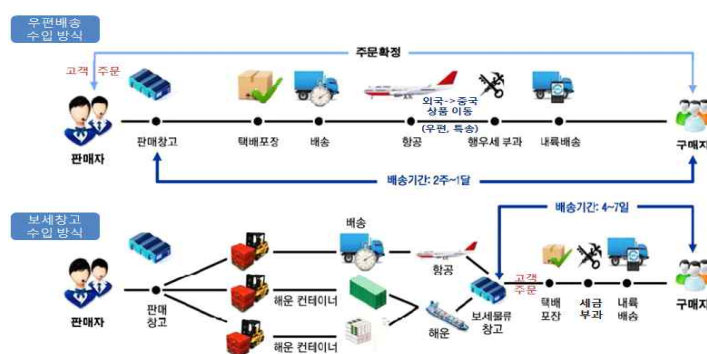
7) 외국상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고자 외국·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외국상품을 중국에 반입·판매하는 방식.

- 2014년부터 시범지역에 한해 1회 구매액 1,000위안 이하인 자가사용용품을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 시 행우세(行邮税)⁸⁾를 적용하고, 총 세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해줌으로써 세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 주었음.
- 낮은 세율을 통해 제품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을 정식 루트로 구매하도록 유도

■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⁹⁾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이하 종합시험구)’를 지정하여, 각 시범지역이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보세구를 활용한 B2C 수입 방식인 ‘보세창고(备货)’¹⁰⁾ 수입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

- 2012년부터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Ningbo(宁波), 정저우(郑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톈진(天津)을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통관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험 추진하도록 촉구
- 2015~16년 기준 8개 시범도시에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쑤저우(苏州), 허페이(合肥), 청두(成都) 5개 도시가 추가된 13개 도시를 종합시험구로 지정하여, 시범도시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을 확대·업그레이드함.
- 이들 시범지역에서는 빠른 통관·배송, 비용 절감이 가능한 보세창고 수입이 허용되어 해외상품 수입이 증가¹¹⁾
-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우편배송(直邮)’ 수입 방식에 비해 △ 대량 운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고객 주문 후 배송까지의 시간 단축 효과 △ 상품 사전등록으로 인한 통관 간소화 △ 교환·환불이 용이하여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신뢰 및 후생 제고 등 장점이 있으나,¹²⁾ △ 보세물류창고 보관비용 소요 △ 미판매 제품의 처리·반송 리스크 등 단점이 있음.

그림 3. 보세창고수입, 우편배송수입 배송방식 비교



자료: 김익용(2016), 「티몰/타오바오 활용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

- 8) ‘행우세’란 중국 해관이 소량의 자가사용물품(여행객의 휴대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 등)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로, 간이통관세 혹은 우편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통 일반무역 수입 세율보다 낮음.
- 9)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는 수출 시범업무만 허용된 도시, 수출·수입 시범업무가 모두 허용된 도시 두 종류가 있으나, 본 보고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8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정의.
- 10) 보세창고수입이란 주문이 빈번한 상품을 고객 주문 전에 미리 중국 내 보세창고에 대량으로 반입·보관한 후, 고객이 세관 전산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물건을 개별 포장·배송하는 방식으로, ‘비화수입(备货进口)’, ‘B2B2C 수입’이라고도 불림.
- 11) 중국정부는 △ 중국 소비자가 해외 상품을 보다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 타이공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소비재의 유통을 줄이고 △ 불법 수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는 등 여러 목적으로 보세창고수입 방식을 허용
- 12) 2016년 4월 신규 정책(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에 대한 신규 세제,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 발표 전까지는 △ 행우세가 적용되어 세금 감면 효과가 컸으며 △ 일부지역에서는 화장품, 보건식품, 영유아용품 등이 위생검역 없이도 수입이 가능했음. 그러나 중국 정부는 △ 일반무역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입업체와의 세율 형평성 △ 제품 소량 분할 포장 등을 통한 ‘세액 50위안 이하 면세’ 혜택 악용 △ 위생검역 없이 들어온 상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함. 광둥성 국경간 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박영균(2016),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화장품기업 대중수출 진출 전략」, 코트라 세미나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 자료.

- 한편 최근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에 대한 신규 세제를 정식으로 마련하고 수입 허용품목(이하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을 공표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화를 강화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음.¹³⁾
- 2016년 4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매상품에 대한 신규 세제(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를 마련하여,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고 관련 전자서류(주문서·지불서·운송장) 제출이 가능한 소매수입상품에 대해, 그동안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행우세 대신 신규 세제를 적용
 - 신규세제는 △ 1회 구매액 2,000위안 이하인 경우 일반무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의 70% 부과(관세는 면제) △ 2,000위안 초과 시 일반무역과 동일한 세액(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을 적용함으로써, 행우세 적용 시기보다 소매수입 상품 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¹⁴⁾
 - 또한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를 마련하여 수입 가능한 품목을 명확히 하고, 우편·특송 방식으로 가짜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등 통관 제도화 및 관리감독 강화
 - 이전까지는 소매수입상품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은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이 운용되었으나, 2016년 4월부터는 수입허용 품목에 포함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이 시행됨.¹⁵⁾
 - HS 8단위 기준 1,293개 품목의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보건의약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등은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만 수입 가능토록 수입 조건 명시
 - 2015년 6월 중국 국무원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수출기업의 해외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해외에 물류창고·중국상품 O2O 체험점¹⁶⁾을 구축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 허페이와 같이 제조업이 발전한 도시가 2016년 새롭게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중국정부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¹⁷⁾

표 1. 중국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관련 정책 및 주요 회의	발표시기	주요 내용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업무 회의 (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启动部署会)	2012.12	- 상하이, 충칭, 항저우, Ningbo, 정저우 5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지정(이후 광저우, 선전, 톈진을 추가 지정) - 각 시범도시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의 장애요인 해결, 통관 서비스 개선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촉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세수정책에 관한 의견 (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的意见)	2013.8	- 조건에 부합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화물 부가가치세·소비세 면제

13)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이전에는 B2C 교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많이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B2B 교역 및 수출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음. 정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연구원 판용 교수,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4).

14) 2014년 전 적용되었던 일반무역 세율보다는 부담이 낮음.

15) 이번 정책 조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2016년 5월 24일 중국정부는 보건의약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등 소매수입상품에 대한 위생허가 요구 정책을 20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할 것이라 발표. 海关总署(2016), 「海关总署办公厅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告」.

16)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O2O 체험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된 오프라인 판매점을 가리킴. 소비자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구입할 상품을 고르면 온라인으로 주문이 이뤄지고 상품이 전달 됨. 최근 중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외국상품을 판매하는 O2O 체험점이 많이 설립되었으며, 중국정부는 같은 방식의 O2O 체험점을 외국에 설립해 중국상품 수출에 활용하고자 함.

17) 정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판용 교수 인터뷰(2016. 4).

표 1. 계속

관련 정책 및 주요 회의	발표시기	주요 내용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의 전자상거래 보세수입 문제에 관한 통지 (关于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网购保税进口模式有关问题的通知)	2014. 3	- 시범도시에 한해 자가사용용품 1회 구매액이 1,000위안 이하인 경우 행우세(行邮税)를 적용하며, 세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 - 1회 구매액이 1,000위안 초과 시 '화물'로 간주해 일반무역과 같은 통관 절차·세액(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적용, 1,000위안 이상이나 분리가 불가능한 단품이며 자가사용용품인 경우 행우세 적용 - 본 시범정책은 중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물류 기업만 적용되며, 세관 등 관리부처와의 정보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함
세관 관리 코드 추가 관련 공지 (关于增列海关监管方式代码的公告)	2014. 7	- 보세창고(备货) 방식 수입에 적용하는 세관 관리 코드(1210) 마련
중국(항저우)종합시험구 설립 비준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2015. 3	- 항저우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하여, 교역·결제·통관 등 분야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관리감독 모델을 마련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산업체인을 구축토록 촉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세관 작업시간 및 통관기한에 관한 통지 (关于调整跨境贸易电子商务监管海关作业时间和通关时限要求有关事宜的通知)	2015. 5	- 각 지역 세관 연중무휴 업무수행 촉구 -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된 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교역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24시간 내 세관 수속 완료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促进跨境电子商务健康快速发展的指导意见)	2015. 6	- 중국 기업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해외 판매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소매수출기업·외국기업 간 협력 지원, 해외창고·O2O 체험점 개설 지원 - 합리적 수입을 통해 내수 확대 촉진 - 통관·검역 관리 제고, 수출입 세수정책 명확화 - 일대일로 관련국(沿线国家)과의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톈진 등 12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비준 (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等12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2016. 1	- 톈진, 상하이, 광저우, 정저우, 닝보, 선전, 충칭,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를 종합시험구로 추가 지정해, 항저우의 정책을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맞는 발전 정책을 추진토록 촉구
품질 제고를 위한 2016년 행동계획 (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6年行动计划)	2016. 4	- 우편·특송 방식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 발생하는 위법 행위, 가짜상품 유통 행위 엄격 단속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2016. 4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매상품에 대한 신규 세제 마련 1)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고 관련 전자서류(주문서·지불서·운송장) 제출이 가능한 소매수입상품에 대해, 그동안 잠정 적용했던 행우세 대신 신규 세제 적용: △ 1회 구매액 2,000위안 이하인 경우 일반무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의 70% 부과 △ 2,000위안 초과 시 일반무역과 동일한 세액(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 적용 2) 개인의 우편물·수화물은 행우세 지속 적용, 기존의 4단계 세목(10%·20%·30%·50%)을 3개(15%·30%·60%)로 개편(세율 전반적 증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목록에 관한 통지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	2016. 4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 공표: HS 8단위 기준 1,293개 품목만의 수입 허용 -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 가능토록 제한(수입 시 위생허가 필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세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통지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	2016. 5	-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인증 요구를 2017년 5월 11일까지 잠정 중단(위생허가 없이 수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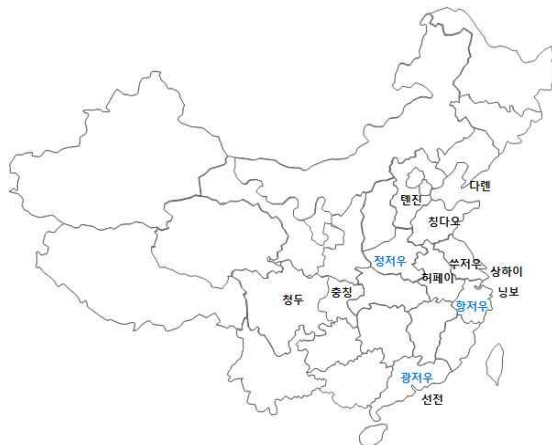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KOTRA(2016), 「중국 4월 8일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행우세 폐지」; KITA(2016), 「중국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 「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的意见」; 「关于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网购保税进口模式有关问题的通知」; 「关于增列海关监管方式代码的公告」;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关于调整跨境贸易电子商务监管海关作业时间和通关时限要求有关事宜的通知」; 「关于促进跨境电子商务健康快速发展的指导意见」; 「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等12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 「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6年行动计划」;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

■ 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인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 항저우는 가장 먼저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곳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 광저우는 2015년 기준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정저우는 중서부 내륙지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점도시이자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함.¹⁸⁾

- 2017년에는 약 10개 도시가 종합시험구로 추가 지정될 예정으로, 현 13개 종합시험구에서 시범 추진되는 정책이 점차 확산 보급될 것임.¹⁹⁾

그림 4. 중국 13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위치



주: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지역은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 지역
자료: 저자 작성.

표 2. 시범지역 승인 현황

도시명	시범도시 승인	종합시험구 승인	특징
항저우	2012. 12	2015. 3	- 종합시험구로 가장 먼저 지정 - 알리바바가 소재하는 등 전자상거래 산업기반 우수
상하이, 닝보, 충칭, 정저우	2012. 12	2016. 1	- 동부 연해(상하이, 닝보) 및 중서부 내륙(충칭, 정저우)의 물류 거점 - 정저우는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시범지역 중 가장 먼저 도입
광저우	2013. 9	2016. 1	- 13개 종합시험구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1위(2015) - 대외무역 발달,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홍콩·마카오·아세안과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의 높은 연계성 보유
선전	2014. 7	2016. 1	- 홍콩·마카오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활발
톈진	2015. 9	2016. 1	- 8개 시범도시 중 마지막으로 지정됨 - 환발해지역의 경제 중심, 중국 3대항구인 천진항 보유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	2016. 1	- 시범도시가 아니었으나 종합시험구로 지정됨 - 허페이: 정저우에 이은 중부지역 두 번째 종합시험구 - 청두: 서남지역의 과학기술·무역·금융 중심지 - 다롄: 동북지역 첫 종합시험구 - 칭다오: 한국과의 해상 교역이 활발한 산둥(山東)성의 거점도시 - 쑤저우: 창장삼각주(长三角)지역 네 번째 종합시험구

자료: 「中国七大城市跨境电商政策试点大盘点」(2015. 7. 13), 中国物流产品网, <http://www.56products.com/News/2015-7-13/F2GH2039457F7KE5320.html>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18) 「广州跨境电商位居全国第一」(2016. 1. 12),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60112/47032143_0.shtml(검색일: 2016. 3. 25).

19)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4).

3. 거점지역 현황

가. 항저우

■ 저장(浙江)성 성도인 항저우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가 위치한 곳으로, 우수한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기반으로 인해 중국의 첫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2015년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활발

- 전자상거래 전 분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그룹을 중심으로 왕이카오라(网易考拉) 등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재
 - 알리바바그룹 산하에는 B2 B기업 알리바바, B2C 수출기업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B2C 수입기업 티몰(Tmall), C2C 기업 타오바오(淘宝), 온라인 결제기업 알리페이(Alipay), 물류기업 차이나오(菜鸟) 등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각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수준
 - 왕이카오라는 중국 3대 뉴스포털 서비스업체인 왕이(网易)닷컴이 운영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왕이닷컴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전자상거래에 활용해 성장 중
 - 인터넷 관련 기업이 50만 개로 거대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중 1/3이 항저우에 소재²⁰⁾
- 2014년 2,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2015년 34.6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수출은 22.7억 달러, 수입은 11.9억 달러로 각각 항저우시 전체 수출 및 수입의 4.5%와 7.2%를 차지²¹⁾

■ 항저우는 사사단지(下沙园区)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도입하여 분유, 기저귀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위생검역을 강화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상품의 수입이 타격을 입음.

- 항저우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인 사사, 샤청(下城), 공항단지에서 보세창고 수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중 2014년 5월 가장 먼저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도입한 사사단지는 2015년 전체 B2C수입 25.2억 위안 중 보세창고 수입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보세창고 수입 활용도가 높았음.²²⁾
-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등으로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의 수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가방, 미용용품 수입도 활발함. 한국으로부터는 화장품, 의류 등을 주로 수입²³⁾
- 한편 2016년 4월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소매수입 상품 목록에 관한 통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기존 면제 사항이었던 위생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분유, 화장품 등 위생허가 필요한 제품의 수입이 감소함.²⁴⁾

20) 정부에 등록된 기업 기준. 『杭州经验』背后：马云的故乡如何玩转跨境电商? (2016. 1. 26), 『中国企业报』.

21) 『杭州综试区捧出周年成绩单』(2016. 3. 8), 浙江在线, <http://hangzhou.zjol.com.cn/system/2016/03/08/021054677.shtml> (검색일: 2016. 4. 25);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지역별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공표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우며 통일된 기준으로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5~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4).

22) 『杭州跨境电商产业园下沙园区2015年交易额达25.2亿元』(2016. 3. 11), 浙商网, <http://hangzhou.zjol.com.cn/system/2016/03/11/021061711.shtml> (검색일: 2016. 5. 20).

23) 『“阳光海淘”火爆 进口年货畅销』(2015. 2. 6), 浙商网, <http://zj.people.com.cn/n/2015/0206/c186806-23813409.html> (검색일: 2016. 5. 20);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6. 4).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해외상품 O2O 체험점(이하 O2O 체험점)²⁵⁾’ 설립을 장려해, 2015년부터 다양한 규모의 O2O 체험점이 설립됨.

- 2015년 말 기준 10개의 O2O 체험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 물품은 영유아용품, 식품, 건강식품, 일용품, 의류, 소형가전 등임.
-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인 샤샤 및 샤청 단지에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O2O 체험점이 설립되었으며, 이 외에 백화점·쇼핑몰 유통체인기업인 인타이(银泰)가 수입식품 중심의 O2O 체험점을, 량요우(粮油)식품수출입회사가 우체국 내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O2O 체험점을 운영 중임.
- 2016년 샤청단지에 설립된 O2O 체험점인 ‘국경간 전자상거래타운’에는 한국의 ‘하하하쇼핑’이 진출해 한국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²⁶⁾

표 3. 항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점

체험점명	소재지	회사	비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센터 (跨境电子商务 O2O 体验中心)	샤샤 단지	정부 주도	- 2015년 4월 개점 - 주로 보세창고방식으로 수입된 영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의류, 가구·인테리어용품 3천여 종류의 상품 판매 - 티몰, 쑤닝(苏宁易购) 등 주요 전자상거래기업 플랫폼을 통해 물품 공급
초이스시쉬안 (Choice西选)	샤청구 (下城区)	인타이시쉬안 (银泰西选)	- 2015년 6월 개점 - 수입마트와 O2O체험점이 결합된 형태
하이타오러거우 (海淘乐购)	샤청구 (下城区)	항저우 우체국, 량요우(粮油) 식품수출입회사	- 2015년 8월 개점 - 우린광장(武林广场) 우체국 내 위치
국경간 전자상거래타운 (跨境小镇)	샤청단지	정부, 신탄디(新天地)	- 2016년 3월 개점 - 불가리아,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캐나다, 한국 등 국가별 매장, 하이마이(海麒麟), 양정링(洋精灵)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매장이 모여 쇼핑스트리트를 이루고 있음. - 한국관은 ‘하하하쇼핑’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

자료: ‘扒一扒杭州这4家跨境电商O2O体验区’(2015. 6. 24), 杭州日报, <http://www.ebrun.com/20150624/138291.shtml>(검색일: 2016. 5. 16); ‘跨境电商O2O新玩法: 邮局开设海淘商品展示区’(2015. 8. 23), 亿邦动力网, <http://www.ebrun.com/20150823/145931.shtml>(검색일: 2016. 5. 16); 샤청단지 관계자 인터뷰(2016. 4).

24) 『跨境电商行业洗牌开始 投资热情或降温』(2016. 5. 11),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info/2016-05/11/c_135350388.htm(검색일: 2016. 5. 20).

25) 중국의 해외상품 O2O 체험점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외국의 제품을 구매 전에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주문 후 금방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체험점에 마련된 상품은 보세창고 방식을 통해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나 일반무역, 우편배송 등 다른 루트로 수입된 상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체험점이 ‘면세점’·‘보세면세점’ 등의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 면세점과는 다른 형태의 판매점임. 중국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쇼핑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해외상품의 불법 유통을 줄이고자 O2O 체험점 설립을 장려.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코트라 정저우·항저우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6. 4).

26) 하하하쇼핑은 옌타이(烟台)에 법인이 설립된 기업으로, 2015년 광저우, 2016년 항저우에 한국상품 O2O 체험점을 열었으며 주로 인천, 평택에서 상품을 발송하여 옌타이, 칭다오를 거쳐 항저우, 광저우 등지로 배송함. 하하하쇼핑 블로그(<http://blog.naver.com/ilhahaha>2015) 및 샤청단지 관계자 인터뷰(2016. 4).

■ 2015년 3월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대 플랫폼과 6대 시스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²⁷⁾

- 2대 플랫폼은 온라인상의 ‘단일창구’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종합산업단지’ 플랫폼을 뜻함.
 - 단일창구는 세관, 검역, 외환, 물류, 금융 등 각 담당기관별로 분담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기업과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 통관 전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통관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²⁸⁾
 - 종합산업단지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종합무역서비스기업, 금융서비스기업, 물류창고기업 등 기업을 집적시켜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10억 달러에 달하는 종합산업단지를 10개 이상 구축할 계획²⁹⁾
- 6대 시스템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발전의 제도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 정보공유시스템 △ 금융서비스시스템 △ 스마트물류시스템 △ 전자상거래 신용시스템 △ 통계모니터링시스템 △ 리스크예방 시스템을 가리키며 단일창구를 매개로 이뤄질 것임(표 4 참고).
 - 6대 시스템을 통해 △ 스마트 물류로 배송 효율은 높이고 상품가격은 낮추며 △ 일반무역에만 맞춰져 있는 가짜 제품 퇴출과 관련된 법체계를 온라인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데이터 집계를 규범화하고 △ 업종, 시장, 제품 품질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함.

표 4. 항저우 종합시험구의 ‘2대 플랫폼, 6대 시스템’

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2대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단일창구	- 통계표준, 인증시스템, 세관, 검역, 외환관리, 세수, 비즈니스, 물류, 금융 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공유
	오프라인 플랫폼: 종합단지	-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전자상거래 서비스 집적
6대 시스템	정보공유 시스템	- 통관, 세금, 환율, 검역, 물류, 금융 절차상 정보 교류 - 관리감독부서, 지방정부,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기업 간 정보 공유
	금융서비스 시스템	- 금융기관, 지불기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외무역 서비스기업간 규범화 실시 - 결제, 온라인 대출, 온라인 보험 관련 간편하고 리스크 조절이 가능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마련
	스마트물류 시스템	- 물류 공공정보 플랫폼, 물류 스마트정보·물류창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해 물류공급체인 관리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시스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신용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 축적 -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를 기관간에 공유하고 정보 공개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 각 플랫폼의 상품거래, 물류 통관, 금융결제 데이터 분석 - 국경간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센터 구축, ‘국경간 전자상거래 지수’ 발표,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리스크예방 시스템	- 국경간 전자상거래 리스크 정보수집·평가분석·정보·재검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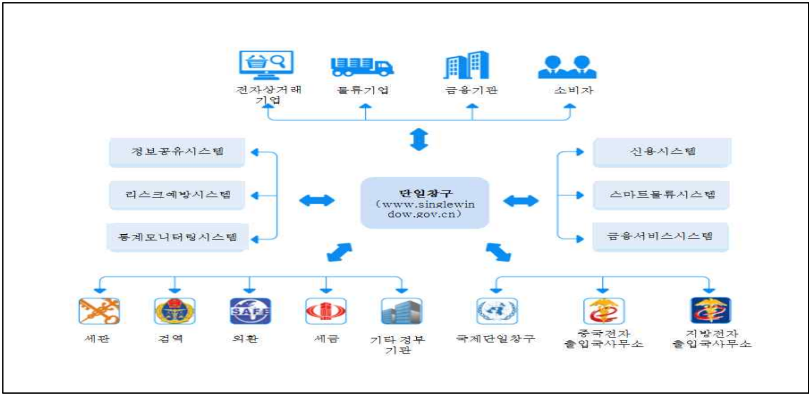
자료: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

27) 시범도시 시기에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후에는 ‘항저우 종합시험구 실시방안’, ‘항저우 종합시험구 발전규획’ 등 정책을 마련·공표함으로써 다른 시범지역에 앞서 종합시험구의 발전 목표·계획을 구체화함; 항저우 종합시험구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2대 플랫폼과 6대 시스템’은 다른 종합시험구에서도 유사하게 구축될 예정임. 항저우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5).

28) 시범도시 시기에도 통관 편리화를 위해 ‘과징이부다(跨境一步达)’와 같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었음. 단일창구는 기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시장정보, 세관, 외환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전 분야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과징이부다’ 등은 기업이 구축한 것인 데 반해 단일창구는 항저우시 정부가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각 기업·개인에게 공평하게 제공됨. 항저우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6. 5).

29) 기존의 샤청(下城), 샤사(下沙), 공항(空港) 등 주요 7개 종합단지를 중점 발전시키고, 다른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

그림 5. 단일창구 시스템



자료: 항저우종합시험구 홈페이지.

표 5. 항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단지명	주요 특징 및 계획
샤청단지 (下城园区)	- 항저우 첫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B2C 통관서비스 특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창업, 통제 등 기능을 집적시켜, 저장성·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혁신 선도지역으로 육성
샤샤단지 (下沙园区)	- 현재 항저우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 수출가공과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관리감독·물류·전시·인재육성·금융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험구 조성
공항단지 (空港园区)	- 공항과 항저우보세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항공물류에 특화된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 물류, 택배, 세관신고, 항공운송, 출입국서비스, 보세창고, 온라인교역 및 오프라인전시, 금융결제, 택배 산업체인 시스템 구축
린안단지 (临安区)	- 주로 B2B위주의 수출업무를 담당(B2C 업무도 병행) - 항저우 서부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점지역으로, 항저우 서북지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
장간단지 (江干园区)	- 본사형, 서비스형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 인재육성, O2O전시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
샤오산단지 (萧山区)	- 개발구 산업단지, 우편·특급우편 산업단지, 신탕산업원(新塘产业园)의 3대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기지 건설
위항단지 (余杭园区)	- 전통 제조업과 알리바바 등 신흥기업의 협력으로 창업, 문화, 미래 과학기술과 관련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핵심구 구축

자료: 「中国(杭州) 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发展规划」; 항저우 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 이 외에 △ 통관절차 개선 △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 확대 △ 물류 개선을 통한 수출 확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창업·투자 확대 등에도 노력

- △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관절차를 B2B·B2C, 수입·수출 각 분야별로 구분해 명시하고³⁰⁾ △ 수출 부가가치세·수출 환급세와 관련이 없고 5,000위안 이하 소액 B2C 수출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 B2C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을 소비자 대신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통관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함.³¹⁾
- 방직의류, 전자제품 등 분야의 전통 무역·제조기업이 알리바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30) 그동안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수출과 수입, B2B, B2C 각 분야별로 참여주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가 분야별 구분이 없이 안내되어 혼선이 있었음.
31) 「中国(杭州) 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海关监管方案」.

- 항저우 정부는 알리바바와 함께 2015년부터 항저우 지역의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이 온라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전문액션(专项行动) 사업을 시행함.
- 국제 대형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2017년까지 새 항공화물 노선을 2개 이상 개통하며 러시아, 브라질, EU,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공공 해외창고를 구축해 기업의 수출 지원
-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내 전자상거래 발전 지역과 유럽·러시아·브라질 등 국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열어 2017년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산업 선도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100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유치

표 6. 항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문건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항저우시 종합시험구 실시방안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	2015. 6	- 2대 플랫폼, 6대 시스템 구축 - 통관절차 세분화·전산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국 통관 일체화 방안 연구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통용규칙 연구,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항저우시 종합시험구 발전규획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发展规划)	2016. 1	- 2대 플랫폼, 6대 시스템 구축 강화 - 방직의류, 전자제품 등 전통 무역기업과 제조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업무 확대 지원 -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국내 도시, 유럽, 러시아, 브라질, 홍콩 등지에서 투자활동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기업 등록과정 간소화, 중소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창업자금 조성 등을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 - 2017년까지 새 항공화물 노선을 2개 이상 개통하고, 러시아, 브라질, EU, 미국 및 일대일로 관련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공공 해외창고를 구축해 기업의 수출 지원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정 연구 - ‘국경간전자상거래분쟁중재위원회’를 마련해 분쟁 해결, 소비자 권익 강화 - 민영기업·유통기업 등이 유통거점에 O2O 체험점 사업 추진 장려 - 2017년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5,000개 육성,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100억 달러 달성(수입 40억 달러, 수출 60억 달러), 국경간 전자상거래 혁신·교역·빅데이터 중심지 조성

자료: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发展规划」.

나. 광저우

■ 광저우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광둥(广东)성의 성도로 우수한 대외무역 환경, 지리적 우위, 전자상거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화남지역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67.5억 위안으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가 빠름.

-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의 핵심지역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하고 아세안과의 연계성도 높으며 중국 주요 상품 집결지이자 국제무역의 주축으로, 공항 및 항구 등 우수한 물류기반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가 발전
 - 해상실크로드 기점 중 하나로 해운·철도·고속도로망이 교차하고 물류 인프라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 2015년 광저우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은 약 879개 정도이며, VIP, GlobalMarket, PAYECO 등 유명 전자상거래기업이 소재³²⁾

32) 전자상거래 기업이 732개, 물류기업이 112개, 지불기업이 35개.

- VIP는 중국의 3대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며, GlobalMarket은 중국 대표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³³⁾
- 결제회사인 PAYECO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200여 개에 인민폐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광저우의 알리페이’로 성장 중
- 2015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3.7배 증가하여 목표치인 40억 위안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교역액 중 수출은 3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7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33.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8배 증가³⁴⁾
- 주요 수입국은 EU, 미국, 호주, 동남아, 한국, 일본이며, 수입 품목은 신선식품, 유아용품, 잡화, 화장품, 디지털 전자제품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신선식품 수입이 많음.³⁵⁾
- 동남아로부터는 식품을, 호주로부터는 보건용품과 해산물을, 한국으로부터는 화장품과 소형 전자제품을 주로 수입
- △ 호주·동남아와의 지리적 인접성 △ 남방항공과 바이윈(白云)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물류의 발달 △ 중국 최대 수입 과일 도매시장 소재 등으로 인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산물, 소고기, 과일 등의 신선식품 수입이 많은 편³⁶⁾

■ 2014년 보세창고 수입을 시작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통관관리를 통해 수입상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 2014년 2월 바이윈공항 종합보세구에서 처음으로 보세창고 수입이 시행된 이후 보세창고 수입이 크게 증가
- 공항종합보세구의 2015년 상반기 B2C 수입 중 70% 이상이 보세창고 수입이며, 보세창고 수입 교역액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³⁷⁾
- 광저우공항 검역국은 2015년 9월부터 보세창고 방식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 화장품, 유전자조작 식자재 역시 일반무역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련부처의 인증,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³⁸⁾
- 광저우 검역국은 2015년 10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유아용 장난감과 우유병을 대상으로 한 샘플검사에서 검사 대상 상품이 모두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소비자들에게 수입상품 구입 시 품질에 유의할 것을 당부³⁹⁾

■ 종합시험구로 지정된 후 항저우와 같은 2대 플랫폼·6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 통관 효율·관리감독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에 주력

- 단일창구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정보공유·금융서비스·물류·신용·통계모니터링·리스크예방 시스템 강화

33) 전자상거래의 특징상 VIP가 광저우에서 시장점유율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거나 하는 현상은 없지만, 로컬기업이기에 광저우 내 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음.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 (2016. 4).

34) 「广州发力跨境电商 “千年商都”焕发新活力」(2016. 4. 14), 人民网,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6-04/14/content_1670579.htm(검색일: 2016. 5. 20);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35)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36)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国内首个跨境保税生鲜自营仓 落户白云机场」(2016. 1. 13), 网易, <http://news.163.com/16/0113/01/BD63CR9400014Q4P.html>(검색일: 2016. 5. 20).

37) 「首个空港跨境电商试验园区成立」(2015. 7. 30),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local/2015-07/30/c_128073254.htm(검색일: 2016. 5. 20).

38) 「广州检疫局:部分类目无备案不能保税备货」(2015. 9. 18), 亿邦动力网 <http://www.ebrun.com/20150918/149338.shtml>(검색일: 2016. 5. 20).

39) 「广州抽查跨境电商进口儿童用品 玩具和奶瓶全不合格」(2015. 10. 23), 人民网, <http://legal.people.com.cn/n/2015/1023/c188502-27732460.html>(검색일: 2016. 5. 20).

- 난샤(南沙)보세항구, 바이윈공항 종합보세구, 황푸(黄埔)보세구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플랫폼·물류·금융 기업이 집적하고 육·해·공 물류기능을 모두 구비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
- 통관 전과정을 전산화하고, 소매수입 포지티브리스트에 따라 통관 진행
- 전통 무역기업이 중국·외국의 대형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에 공공 물류창고를 건설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

표 7. 광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문건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광저우시 전자상거래 발전 강화 실시방안 (关于加快电子商务发展的实施方案)	2014. 9	- 국경간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지원 -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지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창고·물류시스템 구축
광저우 종합시험구 실시방안 (中国(广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	2016. 5	- 항저우와 같은 2대 플랫폼·6대 시스템 구축 -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 확대 - 광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자금 지원 - 홍콩·마카오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인증서 상호인증, 세관 관리감독시스템 연동 등의 협력 추진 - 전통 무역기업이 대형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B2B 수출 촉진 - 해외에 공공 물류창고를 건설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류비용 감축 - O2O 체험점을 통해 온라인 제품의 전시·AS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발전 강화 - 통관 전산화, 소매수입 상품 목록 관리제도 실시 등으로 통관 효율화·관리감독 강화 -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상품 기준 마련 및 공표, 상품 감정활동으로 규범화 촉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권 관리 강화,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권리침해 행위 처벌 강화 - 직업학교 등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과정을 개설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자료: 「关于加快电子商务发展的实施方案」; 「中国(广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建设实施方案」.

■ 또한 일대일로 관련국 및 홍콩·마카오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확대하고, O2O 체험점과 같은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 강화⁴⁰⁾

-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 중국 내 최초로 일대일로 관련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더자(我的家)'를 구축 중
 - 위더자는 실크로드기금회(丝绸之路基金会)와 광둥 따징스(广东大京世), 청위안성싱투자(清远盛兴) 등 기업이 공동 투자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중국 및 일대일로 관련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가별 전용 코너를 만들고 다양한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⁴¹⁾

40) 「广州6大跨境电商体验店调查：哪家最值得逛？」(2015. 6. 25),
 联商咨询, <http://www.linkshop.com.cn/web/archives/2015/327997.shtml>(검색일:
 2016. 5. 16).

41) 「全国首个“一带一路”电商平台广州上线」(2016. 4. 6), 民营经济报,
[http://www.ycwb.com/ePaper/myjjb/html/2016-04/06/content_988333](http://www.ycwb.com/ePaper/myjjb/html/2016-04/06/content_988333.htm?div=-1)
 .htm?div=-1(검색일: 2016. 5. 2).

- 홍콩·마카오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인증서를 상호인증하고, 세관 관리감독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 추진
- 광저우에는 2015년 초 'MeijoyBest'가 개점한 이래 20개 이상의 O2O 체험점이 설립되었으며, 광저우 정부는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온라인 상품의 전시 및 AS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⁴²⁾

표 8. 광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점

체험점명	소재지	운영기업	비고
MeijoyBest 보세전시점 (美悦优选保税展示店)	티엔허구 (天河区)	광둥 MeijoyBest 전자상거래유한공사	- 2015년 1월 개점 - 영유아용품, 와인, 식품, 신선식품(해산물), 명품 판매 - 보세상품 비중은 20% 정도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지의 제품 주로 판매
광바이후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체험점 (广百荟跨境电商体验店)	위예시우구 (越秀区), 하이주구 (海珠区)	광바이(广百)주식유한공사	- 2015년 5월 개점, 추가로 2곳이 연이어 개점 - 식품부자재, 영유아용품, 와인을 주로 판매
MOPARK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점 (摩登百货跨境电商O2O体验店)	티엔허구 (天河区), 황푸구 (黄埔区)	광저우 MOPARK 전자상거래유한공사	- 2015년 4월 개점 - 주로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화장품 판매 -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 수입
광저우 보세구 과징통 전자상거래 체험구 (广州保税区跨境通电商体验区)	뤄강 보세구 (萝岗 保税区)	광저우 과징통(跨境通) 전자상거래유한공사	- 2015년 4월 개점 - 광저우 보세구 내 첫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점
난샤 국경간 상품 직구체험센터 (南沙跨境电商商品直购体验中心)	난샤구 (南沙区)	-	- 2015년 2월 개점 -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상품만 판매

자료: 「广州6大跨境电商体验店调查: 哪家最值得逛?」(2015. 6. 25), 联商咨询, <http://www.linkshop.com.cn/web/archives/2015/327997.shtml>
(검색일: 2016. 5. 16).

다. 정저우

■ 중부지역에 위치한 허난(河南)성의 성도 정저우는 내륙지역의 교통·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조건에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져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압도적인 수입 비중 △ 미용용품·유아용품 등 소액 거래 위주 △ 3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심 등의 특징이 나타남.⁴³⁾

- 중국의 핵심 철도인 징광철도(京廣·베이징-광저우를 남북으로 잇는 철도)와 롱하이철도(隴海·렌윈강과 란저우를 동서로

42) 광저우의 O2O 체험점은 아직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해 보세상품 비중이 적고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 변동이 심한 곳이 많은 편으로, 핵심 유통루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업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6. 4).

43) 「2015年河南进出口总值4600.2亿 手机占出口总值六成」(2015. 5. 29),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60114/47074509_0.shtml
(검색일: 2016. 5. 5).

있는 철도)가 교차하며, 징강아오 고속도로(京港澳·베이징-홍콩을 남북으로 잇는 고속도로), 련휘 고속도로(連霍·렌원장과 후허하오터를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 등의 간선도로가 지나는 도로교통의 허브⁴⁴⁾

- 2013년 ‘정저우공항경제종합시험구(郑州航空经济综合实验区)’로 지정되어 항공물류산업이 발전하고, 전자상거래 교역품의 항공 수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항저우, 광저우와 달리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 결제기업 등이 적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무 관련 인력도 부족해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편이나, 허난성 부성장이 직접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도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함.⁴⁵⁾
-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정저우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약 41.1억 위안으로, 교역액 중 수입의 비중이 99.1%에 달하며, 화장품, 마스크팩, 기저귀, 보건의약품, 분유 등 인터넷 베스트셀러 상품이 60% 이상을 차지⁴⁶⁾
 -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임.
- 화장품 전문 인터넷몰인 Jumei(聚美优品)와 VIP, 샤오홍슈(小红书)의 3개 플랫폼을 통한 교역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이뤄짐.
- 주요 수출품은 하드드라이버, 핸드폰 케이스, 인터넷 카메라 등이며 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로 수출⁴⁷⁾

■ 정저우는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13개 시범지역 중 가장 먼저 도입한 곳으로, 통관서비스 개선을 통한 B2C 수입 확대에 주력함.

- 2013년 7월 통관, 물류, 결제 기관의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본 플랫폼과 허난보세물류센터의 보세창고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세창고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Tmall Global, Jumei, VIP, ebay 등의 여러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과 DHL, EMS, 중통(中通), 위안통(圆通) 등 유명 물류기업이 정저우의 보세창고 수입에 참여
- 초기에는 행우세 적용으로 인한 세금 혜택, 허난성 정부가 특별히 실시한 위생허가 면제 조치에 힘입어 하루 평균 20여만 개의 물품이 통관될 정도로 보세창고방식을 통한 B2C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 신규 세제, 사전 인증 의무 강화 등의 정책 변화로 화장품, 분유 등 수입이 감소⁴⁸⁾

■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투자한 O2O 체험점, 한국제품 중심의 O2O 체험점 등이 설립되고 있음.

- 허난보세물류센터와 정저우시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중다면(中大门)’이 2015년 개점하여 해외 영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의류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은 후, 설화수 등의 화장품을 주로 판매⁴⁹⁾

44) KIEP(2014), 「중국 도시정보 시리즈: 허난성 정저우시」.

45) KOTRA(2013), 「정저우, 중국 내 최초 국가급 e무역 시범 운영」.

46) 정저우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데이터는 시범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된 2013년 7월부터의 누계액, 정식 플랫폼을 통해 교역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공표된 자료만 있음.

47) 「郑州跨境贸易电子商务进出口值突破亿元大关」(2015. 1. 8), 大河报 http://news.ifeng.com/a/20160114/47074509_0.shtml(검색일: 2016. 5. 5).

48) 2016년 4월 도입된 신규 세제,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로 인해 주요 수입품인 화장품, 분유 수입에 타격을 입음. 허난보세물류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 덴마크 분유의 경우 마트, 백화점의 약 60% 가격으로 판매해 인기를 끌.
- 4월 신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위생허가 없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새로 출시된 화장품을 신속히 유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음.
- 공항 인근에 2016년 설립된 ‘해외상품 전시교역센터’는 3층 규모의 대형 매장에서 10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이 50% 이상(화장품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제품 판매에 주력⁵⁰⁾

표 9. 정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체험점

체험점명	소재지	운영기업	비고
중다먼 보세직구체험센터 (中大门保税直购体验中心)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허난보세물류센터	허난 보세물류센터	- 2015년 5월 개점한 중국 중부지역 첫 국경간 전자상거래 O2O 체험점 - 보세창고방식 수입 상품, 일반무역 수입 상품, 허난성 특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 한국 상품은 후, 설화수 등의 화장품을 주로 판매 - 허난보세물류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보세창고방식 수입품이 대다수
해외상품 전시교역센터 (跨境商品展示交易中心)	정저우항공항경제 종합시험구 신정(新郑) 종합보세구	스항즈창 (世航之窗), 다상그룹 (大商集团)	- 2016년 2월 개점 - 3층으로 된 대형매장에서 유아용품, 명품, 화장품, 잡화, 의류, 식품 등 10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며, 식당, 미용실도 갖춘 복합쇼핑몰 - 허난성 대표 유통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전문화된 상품 소싱, 홍보활동 진행 중 - 한국인 설계사를 고용해 매장 인테리어를 한국식으로 하고 한국상품 비중이 전체 상품의 50% - 한국상품은 화장품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 동대문 의류, Orange Factory 등의 의류, 유아용품, 의류도 많이 판매 - 김포에 해외창고를 설립해 한국상품의 원활한 배송, 수입방식 다양화에 노력할 예정

자료: 허난보세물류센터 관계자 및 해외상품 전시교역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 2016년 초 종합시험구로 격상됨에 따라 항저우와 같은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 및 B2B 교역 증진 노선에 맞춰 역내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유통채널 확대에 주력

-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허난성 비즈니스 공공서비스 플랫폼(河南省商务公共服务云平台)’을 중심으로 단일창구 구축 중
- 허난성 농산물 온라인 교역 플랫폼을 구축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식품, 방직품, 장비 등 허난성의 주요 생산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해외창고와 O2O 체험점을 구축할 계획
- 허난성 국유기업인 루강(陆港)그룹은 정저우-유럽 국제화물열차를 활용해 농작물, 육류 등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⁵¹⁾
- 한국에는 김포공항에 창고를 마련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운송된 허난성 제품 전시·판매점을 만들 예정.⁵²⁾

49) 허난보세물류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50) 마케팅책임자가 한국을 한 달에 2~3회 방문에 입점 브랜드·상품을 유치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노력. 해외상품 전시교역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51) 코트라 정저우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6. 4).

52) 해외상품 전시교역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 10개 우위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세계공장망(世界工厂网) 등 로컬 B2B 플랫폼의 발전을 지원

■ 다른 시범지역보다 취약한 산업 기반을 보완하고자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및 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 정부의 산업발전기금을 활용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무역서비스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
- 인력양성을 종합시험구 핵심 정책인 단일창구 구축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중시여기며, 산관학 협력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생활보조금 지급과 같은 혜택을 통해 허난성 출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등의 정책 추진

표 10. 정저우의 주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책

문건명	발표시기	주요 내용
정저우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범업무 추진 가속화 방안 (加快推进郑州市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方案)	2013. 7	- 세관·검역·세무·외환 담당 부처 관리감독시스템과 허난성 전자항구(口岸)를 연결해 통관을 전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허난보세물류센터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집산·배송센터 구축 - 중국·해외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 결제기업, 물류기업 유치
정저우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推进跨境贸易电子商务发展的意见)	2015. 9	- 허난보세물류센터 중심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조성, 신정(新郑)종합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육성 -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에 기업이 적극 참여토록 장려, 수출입 균형 실현 - 신정종합보세구, 허난보세물류센터 등에 O2O 체험점을 조성해 보세상품 판매 확대 - 시정부의 산업발전기금을 활용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 자금 지원
정저우 종합시험구 건설 실시방안 (中国(郑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建设实施方案)	2016. 5	- 수출 확대·B2B 교역 발전에 주력, 역내 수출입상품 집산·교역중심지로 발전 - 항저우의 2대 플랫폼·6대 시스템에 인재양성·품질안전 시스템 추가 운영 -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한 역내 산업발전 촉진: 농업·제조업의 해외 유통채널 확대, 종합 무역서비스기업 유치,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저우-유럽 화물열차 이용한 화물운수 장려 - 관리감독·종합서비스 개선: 통관 전과정 전산화, 수출·수입 간 표준화된 관리감독시스템 마련, 소매수입상품 포지티브리스트 준수 - 뤼양(洛阳), 카이펑(开封) 등 지급 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업무 확대, 향후 성 전체로 확대 - 2018년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개, 공공 해외창고 100개 조성, 1,000개 기업 발전 지원,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 3천억 위안으로 확대

자료: 「加快推进郑州市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方案」; 「关于加快推进跨境贸易电子商务发展的意见」; 「中国(郑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建设实施方案」.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은 최근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물류·통관 효율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종합적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확충되고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시범도시 시기(2012~14)에는 보세구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창고·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B2C 수입 편리화정책이 비교적 많이 추진됨.

-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는 시범도시 시기와 달리 ‘종합시험구 건설 실시방안’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한 ‘2대 플랫폼과 6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 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 해외 공공 물류창고 건설을 통한 해외 수출 물류비용 감축 △ 플랫폼·물류·금융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유치·집적 △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을 공통적으로 강조

■ ‘단일창구 구축’, ‘보세창고 수입방식의 도입’ 등 활성화 정책의 특징은 ‘정부 관리하의 효율성 증대 및 제도화’이며, 이와 함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점차 정부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영역에서 확대될 전망

- 항저우 등 시범지역에서 구축되는 단일창구는 세관, 검역, 외환관리, 물류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통관 효율을 높이거나, 이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개인에 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
- 물류비용, 배송시간 등에서 이점이 있는 ‘보세창고 수입’ 역시 정부 플랫폼에 등록된 참여자에 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B2C 수입이 정부 관리하에서 양성화되는 데 기여
- 안전한 상품 유통을 통한 중국 소비자 보호 및 세수 유실 방지를 위해 불법 구매대행업자에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품질제고를 위한 2016년 행동계획’ 등을 통해 위법적인 교역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⁵³⁾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양질의 해외상품을 수입하려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및 해외상품 O2O 체험점이 늘고 있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광저우의 엄격한 통관 방식, 정저우의 한국상품 선호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Tmall Global, Jumei Global과 같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며 중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필요가 없어, 중국 현지에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진입이 용이한 부분이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플랫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된 한국제품을 소싱하려는 업체들이 생겨, 보다 다양한 한국제품 소싱 협력이 가능한 상황⁵⁴⁾
- O2O 체험점에서는 중국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은 이러한 체험점을 통해 제품 홍보가 가능함.
- 광저우는 다른 지역에 앞서 식품, 화장품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요구할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통관이 이뤄지는 곳으로, 상품 수출 시 품질 기준을 엄수해야 함.
- 정저우는 한국상품에 초점을 맞춘 대형 O2O 체험점이 생길 정도로 항저우, 광저우와 같은 연해지역보다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곳으로, 인근 중서부지역 소비자를 타겟으로 상품 수출 시 물류거점으로 삼을 수 있음.

■ 최근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상품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 수입상품 세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위생검역이 강

53) 『뉴스핌』(2015), 「中 정부, "내수 진작 위해 해외 구매대행 손 본다"」. (12월 21일)

54)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화되어 일부 상품의 수입에 타격이 있으나, 1회 구매 한도 상향 조정 등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여, 수출기업은 변화가 잦은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2016년 4월부터 실시된 신규 세제에서 1회 구매한도를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1,000~2,000위안 가격대의 상품은 이전보다 세율이 낮아져, 올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기상품이 될 전망이다⁵⁵⁾
- 2016년 5월 말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에 대한 위생허가 요구를 2017년 5월 1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기에,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본 유예기간을 활용해 위생검역을 받는 등 대비 필요⁵⁶⁾

■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에 따라 물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물류기업은 각 시범지역의 수요에 맞춰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수출 활성화정책에 따라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플랫폼이 강화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제조업체는 시범지역의 플랫폼과 물류를 활용하여 제3국 수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항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대형 물류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광저우는 신선식품 수입이 많아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클 것이기에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물류기업의 진출이 유망
- 정저우는 정저우공항공제종합시험구 조성을 위해 항공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항공물류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임.⁵⁷⁾
- 광저우에서 구축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로의 제품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저우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고자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공장망(世界工厂网) B2B 플랫폼, 정저우-유럽행 국제화물열차도 활용할 수 있음.

■ 시범지역은 차별화된 정책, 유관산업 집적 강화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어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의 중점 파트너로 유력하며,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항저우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과 교류 확대 필요

-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높고, 전체 교역액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전체 평균(2015년 기준 약 17%)보다 높은 對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거점이므로, 해당 지역의 플랫폼 및 O2O 체험점과 한국의 수출기업 간 교역 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필요
- 중국 최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인 항저우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정 연구,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쟁중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 등의 지역 정부부처, 항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연구원, 알리바바 산하 아리(阿里)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방향을 파악할 필요 KIEP

55)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제공 자료(2016), 「O2O 내국면세유통의 개화와 향후 방향성-소비재 수입유통의 전환기」; 중국정부의 이러한 세율 조정의 고급상품은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대신, 저가 상품은 자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 광둥성 국경간 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 인터뷰, VIP 한국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6. 4).

56)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정부관리하의 효율성 증대 및 제도화'로 발전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중국 사업을 위해서는 이처럼 위생검역을 정식으로 받는 등 제도화되는 정책에 맞춰가야 할 것임.

57) 정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판용 교수,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4).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익용. 2016. 「티몰/타오바오 활용 중국시장 진출 전략」. CBT 빅바이어 초청 전자상거래 컨퍼런스 자료. 한국무역협회. (3월 2일)
- 박영균. 2016.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화장품기업 대중수출 진출 전략」.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 자료. 코트라. (5월 24일)
- 이성우 외. 2015.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황유선. 2016.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 자료. 코트라. (5월 24일)
- 황현주. 2015. 「중국 통관 wdjcor 변화 및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배경」. 황현주.
-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2016. 「O2O 내국면세유통의 개화와 향후 방향성-소비재 수입유통의 전환기」. 코트라.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6. 「중국의 해외직구(B2C) 정책변화 1개월 후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_____. 2016. 「중국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 한국무역협회.

[중문자료]

- 「加快推进郑州市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工作」. 2013. 豫政办, 61号.
- 「跨境电商内部培训」. 2015.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협회 제공자료.
- 「关于加快电子商务发展的实施方案」. 2014. 穗府办, 54号.
- 「关于加快推进跨境贸易电子商务发展的意见」. 2015. 郑政, 9号.
- 「关于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网购保税进口模式有关问题的通知」. 2013. 署科函, 59号.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2016. 财关税, 18号.
- 「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的意见」. 2013. 豫政办, 61号.
- 「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 2016. 署办发, 29号.
- 「关于促进跨境电子商务健康快速发展的指导意见」. 2015. 国办发, 46号.
- 「中国(郑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建设实施方案」. 2016. 豫政, 28号.
-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发展规划」. 2016. 杭政办函, 8号.
- 「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实施方案」. 2015. 浙编, 25号.
- CNNIO. 2016.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웹사이트]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gceia.org.cn>

중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cnnic.net.cn>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홈페이지, <http://www.china-hzgec.gov.cn>

항저우 통계정보망, <http://www.hzstats.gov.cn>

허난성 보세물류센터 홈페이지, <http://www.hnbcl.com>

[인터뷰]

광둥성 국경간전자상거래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블루아시아 관계자 인터뷰(2016. 5)

샤청단지 관계자 인터뷰(2016. 4)

정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판용 교수 인터뷰(2016. 4)

정저우 해외상품전시교역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코트라 광저우·정저우·항저우 무역관 관계자 인터뷰(2016. 4)

항저우 국경간전자상거래연구원 마스중 교수 인터뷰(2016. 4)

항저우 종합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6. 4)

허난보세물류센터 관계자 인터뷰(2016. 4)

VIP 한국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6. 5)